

질적 아동연구를 위한 해석학의 방법론적 시사

Methodological Implications of Hermeneutics for Qualitative Research on Children

유 혜 령*
Yeu, Hae Ryung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nature of data-interpretation process in the perspective of modern hermeneutics and explores its methodological implications for qualitative research on the life of children. Discussions center around the basic concepts of modern hermeneutics, such as the conceptual distinctions between understanding and explanation, the intersubjective reality constituted between the child's horizon and the researcher's, the concept of the hermeneutic circle and the importance of the openness of language in understanding children's lifeworld. The conclusions are mad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understanding", which is the basic concern of qualitative research on children, has a much different meaning from that of "explanation" in quantitative research. The task of understanding lies in interpreting the lived meaning in context as experienced by children in all its complexity. Second the researcher's subjectivity in the interpretation process has a dual function in that it can produce a faulty hermeneutic circle and yet it provides the researcher with the strong momentum to open up her understanding towards a deeper and wider level. Third,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qualitative research should be discussed within the interpretation process itself in that interpret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is guided basically by the researcher's internal dialectic between data (text) and her subjectivity. Lastly, the language in interpretive research should be open and free in terms of style in order to present a fuller and richer description of children's lifeworld and the delicate textures of their lived meanings.

Ⅰ. 서 론

지식 및 학문의 성격은 세계를 탐구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관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영남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Habermas(1971)는 그의 지식이론에서 인간이 세계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interest)의 성격에 따라 학문의 접근과 유형이 달라진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지적 접근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즉, 사물 및 현상에 대한 기술적 통제(technical control)를 관심으로 하는 ‘경험적-분석적 학문(empirical-analytic sciences)’, 상황과 인간, 그리고 인간간의 의미소통이라는 실제적 관심(practical interests)에서 비롯된 ‘상황적-해석적 학문(situational interpretive sciences)’, 그리고 인간 및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통하여 인간의 사회적 해방(emancipation)에 관심을 두는 ‘비판적 학문(critical sciences)’이 그것이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유아 및 아동관련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한 일부 개념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험 연구, 조사 연구 등의 양적 연구(量的研究)의 형태로 수행되어 왔다(최미숙, 1994). Habermas의 구분에 따른다면 이는 ‘경험적-분석적 접근’에 속하는 것으로, 현상의 객관화를 통하여 지식의 확실성과 효용성, 예측성을 추구하는 실증주의적 관점이 아동연구 분야에 있어 지배적인 연구 패러다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 경향은 아동의 행위 및 아동관련 현상의 인과관계를 원자론적 방법으로 규명하는 데는 많은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동이 처한 환경적 맥락의 통합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아동관련 현실의 복잡미묘하고 다차원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메타인식론적 고찰로부터 실증주의적 인식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동연구의 다원화를 위한

노력으로 ‘상황적-해석적 접근’ 및 ‘비판적 접근’ 등의 대안적 연구 모형이 제안되기도 하면서(유혜령, 1997), 아동 생활세계의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에 점차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질적 연구(質的研究, qualitative research)로 통칭되고 있는 ‘해석적 연구’¹⁾는 종래 지배적인 연구 경향이었던 경험적-분석적 접근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 유기체가 이루어내는 가변적이고 다차원적인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는 아동연구에 있어 다양한 관점과 접근들 사이의 균형감을 이루게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보다 깊게 한다는 점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의 질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학제간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es)으로 이루어진 질적 연구방법론 자체에 관한 논의도 충분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같은 질적 연구방법론에 관한 논의로서, 해석적 연구의 철학적, 방법론적 기저를 이루고 있는 현대 해석학의 이론들을 통하여 아동연구의 질적방법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해석학은 인간의 ‘이해 행위’에 관한 학문으로서 인문사회 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질적 연구에 있어 중요한 방법론적 기초를 제공해온 학문이다. 해석학은 특히 현상학과 더불어 인간의 해석 행위의 성격과, 심층적인 의식의 흐름, 의미화 과정 등을 실존적, 존재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다양한 질적 연구의 방법론들이 각기 나름대로 주된 관심의 차원과 다양한 해석 전략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체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여 자료를 해석한다

1) Habermas(1971)가 구분한 ‘상황적-해석적 학문’에 속하는 분야로는 현상학적, 해석학적, 지식사회학적, 문화기술적(ethnography),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적 접근 등이 속한다.

는 점에서 볼 때 현대 해석학의 기본 관심인 인간의 내면적 해석 과정에 대한 관심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현대 해석학의 학문적 입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해석학의 주요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이해'한다는 행위의 개념적 측면과 해석 행위의 성격을 논의함으로써 현대 해석학이 아동연구의 질적 방법론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한다.

II. 현대 해석학의 입장

해석학은 중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성서나 신학서, 법률서 등의 고전적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세기 독일의 F. Schleiermacher와 W. Dilthey의 고전적 해석학, 금세기의 M. Heidegger의 존재론적 해석학, H.-G. Gadamer의 철학적 해석학, 프랑스의 P. Ricoeur의 변증법적 해석학, 그리고 최근 J. Caputo의 급진적 해석학 등의 계보를 통해,²⁾ 단순히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적 원리 탐구'의 한계를 벗어나 해석의 주체인 인간 존재 및 삶의 문제까지도 심도 있게 철학적으로 구명하는 심오한 학문 분야로 정착하게 되었다. Ricoeur(1981: 43)에 따르면 해석학은 "텍스트(text)의 해석에 관련된 이해 작용에 관한 이론"으로 정의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인간이나 현상 등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해석 행위를 탐구하는 학문인 것이다.

해석학적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텍스트(text)'

라는 개념도 해석학의 발전 과정과 함께 변천해 왔다. 초기의 고전적 해석학에서는 텍스트란 액면적 의미 대로 문자화된 작품이나 문서(written text)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성서 해석이나 법률 해석의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의 방법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대 해석학에 이르러서는 텍스트의 개념이 단순히 문자화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음성적, 영상적 언어로 된 작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표현 수단을 통한 문화적 산물이나 사회적 제도 및 관습, 그리고 집단 또는 개인의 사고 및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었다. Kvale(1983: 185)는 "인간의 모든 객관화된(objectivations) 문화적 행위"가 텍스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해석 행위 또는 의미 형성의 근거 내지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은 비유적인 의미에서 다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작품이나 행위의 결과, 가시화된 제도 등을 모두 다 텍스트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대상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 행위가 내재적으로 해석의 개방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Ricoeur(1981:143)는 해석 행위란 '글로 고정된 내용속에서 텍스트가 제안하는 세계를 전용(專用, appropriate)해나가는 과정'으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 앞에서 독자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해석한다는 것은 "넓은 문화적 이야기들의 맥락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2) 급진적 해석학(radical hermeneutics)은 인간 주체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빛어지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석학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해석학에 포스트모더니즘을 접목하고자 한 Caputo(1986)로 대표된다. 그는 해석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이 종래의 형이상학적, 관념적 논의의 차원을 벗어나 일상적 삶의 수준으로 내려올 때, 공통적으로 삶의 일상적인 불확정성과 소용돌이적 성격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방법을 배우는 일”인 것이다(Smith, 1989:9). 즉,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의 가변성을 전제로 하여 텍스트의 개념을 폭넓게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arthes(1977) 역시 그의 후기 사상에서 텍스트는 그 의미를 하나의 ‘생산품(product)’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production)’으로 제시한다고 봄으로써, 텍스트란 독자가 ‘나름대로 해석해야 할 그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독자에 의한 다의적(多意的) 해석을 전제로 하는 해석의 대상물을 ‘텍스트’라고 보는 것이다.

텍스트 개념의 이 같은 변화는 현대 해석학이 문헌학이나 신학, 법학의 범위를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인간 존재의 문제를 포함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현대 해석학에서는 ‘인간의 해석 행위’를 텍스트의 해석에 관련된 방법적 원리나 해석 기술로 논의하던 종래의 고전적 해석학의 차원을 초월하게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텍스트’ 속에는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지식이나 정보의 ‘객관적’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고 이를 해석해내는 기술만을 문제 삼던 데서 벗어나, 해석의 주체인 인간과 그 인간 존재가 본질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주관성과 시각의 상대성까지 해석 행위의 일부로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 해석학에서는 텍스트 의미의 가변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인간의 의미화 작용과 의식의 흐름, 해석 행위의 성격, 해석 행위 속에 투사되는 인간의 존재론적 반성 등을 주된 쟁점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는 인간의 모든 이해 현상에는 원초적으로 자신의 존재 양식으로부터 비롯되는 불확실한 해석 행위가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어떠한 사고 과정이나 문화적 산물도 근본적으로 ‘해석의 결과’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전제로 인하여 현대 해석학은 해석 행위의 주체가 되는 인간 존재의 문제와, 삶과 실

존의 문제를 포함하는 실존적, 존재론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철학적 해석학으로 유명한 Gadamer(1979:108)는 해석학은 “인간의 삶이 지니고 있는 해석적 차원을 최대한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간의 이해 및 이를 표현하는 모든 표현 양식에 대한 근원적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말로 현대 해석학의 보편적인 존재론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Ⅲ. 아동 이해를 위한 질적 연구의 특성

아동의 존재에 대한 질적 연구는 어떠한 성격을 띠며, 그 해석과정은 양적 연구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여기에서는 해석학적 논의를 통하여 질적 아동연구의 특성을 1) 아동연구의 두 차원: ‘이해’와 ‘설명’, 2) 아동이해의 간주관성, 3) 아동이해의 변증법적 성격과 해석학적 순환, 4) 질적인 아동연구의 글쓰기 순으로 고찰한다.

1. 아동연구의 두 차원: 이해와 설명

전통적으로 인문사회 과학에서는 현상에 대한 탐구의 차원을 ‘이해(understanding)’와 ‘설명(explanation)’의 차원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예로, Dilthey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으나…인간의 정신과 역사, 사회를 연구하는 데는 ‘이해’의 방법이 적절하다”라고 말한다(Rickman, 1979:89에서 재인용). 즉, ‘설명’이란 개념은 자연과학 방법론에서 빌어 온 지성(知性)의 모형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객관적인 외부적 관찰과, 가설 설정 및 검증을 통한 연역적 추론, 자료의 수량화, 결과의 일반화 등의 실증적 탐구 방법을 가리킨다. 이러한 방법은 인간의 다양한 현상을 고정된 규칙성으로 환원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칙성의 논리를 실증적

로 검증할 수 있고 검증된 지식은 객관적인 실재로서 존재한다는 자연과학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설명적’ 탐구를 목표로 하는 아동관련 연구들은 아동 현상에 있어 합리적,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차원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Habermas(1971:309)가 지적하고 있듯이, 경험적-분석적 접근의 철학적 기초인 실증주의적, 합리주의적 세계관은 그 규범적-연역적 추론을 통해 아동관련 현상을 설명가능한 단차원적 인식론의 수준으로 압축시킴으로써 원초적으로 복합적이고 풍부한 아동 생활세계의 의미들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동은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의 분리된 발달인자들간의 합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고정된 발달의 원리나 객관적인 덕목의 기준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 동안 아동 ‘자신’에게만 시선을 고정해, Suransky(1992)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동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주위와의 통합적 관계성, 즉 아동의 세계가 나름대로의 실존적, 존재론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하여 온 것이다. 이는 아동의 “[객관적] 실체보다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비추어 아동의 존재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함을 말한다(Smith, 1996).

‘설명(explanation)’과 대비되는 ‘이해(understanding)’의 개념은 인간 현상에는 고정된 규칙성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개개인의 특이하고 다양한 의미의 차원과 객관적인 이론틀로는 포착하기 힘든 복잡성과 비합리성이 내재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즉, ‘이해’란 인간 현상에 얽힌 의미의 풍부함과 다양함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간의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와 관련되는 것으로, 개개인이 속한 삶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가 경험하는 체험적 의미(lived meaning)의 다양한 모습을 인지적, 심정적(心情的)으로 공감하는 일을 말한다. 이를테면, 어느 특정한 이론적 해석틀의 힘을 빌어 아동대상에 대한 이해를 선제한(先制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지닌 주위 인간 및 사물과의 역동적 관계 상황과 개인적 삶의 역사성 속에서 그의 존재를 총체적이고 개방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바로 ‘그’ 아동의 경험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아동이 느끼는 체험적 의미의 심층을 파악하기까지 한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 대상에 관한 장기간의 개방적인 내부인적 관찰이나 면담, 그리고 연구 대상에 관련된 다양한 일상적 자료, 즉 담화 내용이나 생활 질문 등 가능한 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³⁾

3) ‘설명’과 ‘이해’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구분은 최근에 들어 점차 소멸하고 있다. Ricoeur(1981:152)는 텍스트 해석에 있어 이해와 설명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보적(相補的) 관계에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인식론적 객관성의 차원으로] 하강하는 변증법(descending dialectic)”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텍스트의 해석과정은 텍스트 자체의 구조나 요소들간의 객관적 관계를 파악하는 ‘설명적인’ 인식론의 차원과, 독자의 인식 능력과 선입견, 개인적 사고의 지평, 시각의 폭과 깊이 등에 의해 행간의 의미와 숨은 전제까지도 파악하고 독자의 존재가능성의 양식에까지도 관계되는 ‘이해’의 존재론적 차원이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상호보완을 이루며 순환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인간의 해석 행위가 지닌 주관적 성격에다 객관성의 요소를 보완한 것으로서, Heidegger 등에 의해 정립된 해석학의 존재론적 위상에다 새로이 인식론적 위상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아동 이해의 간주관성(間主觀性)

질적 아동연구의 목적이 아동경험의 체험적 의미에 대한 ‘이해’에 있다면, 이미 아동기를 지난 성인의 입장에서 연구자는 어떻게 아동의 체험적 의미를 ‘체대로’ 이해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질적 연구에 있어 연구 대상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는 해석의 객관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이 문제의 핵심적 측면은 바로 현대 해석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해석자의 주관성의 문제로서, 해석학이 존재론자 Heidegger와 Gadamer를 거쳐 텍스트 자체에 관심을 집중하던 데서 벗어나 해석의 주체인 인간 독자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내용이다.

Heidegger(1962:184-189)에 의하면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 활동하는 세계의 맥락에서 자신의 존재가 지닌 가능성과 직결된다. 즉, 어떠한 사물 및 현상에 대하여 나름대로 의미화하며 해석하는 것은 각 개인의 존재가 바로 그 삶의 시점에서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는 일이며, 그 시점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하나의 양식(mode of being-in-the world)인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연구 대상에 대해 어떠한 측면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하는 것은 연구자의 유한한 삶의 시공간과 삶의 역사성 안에서 그의 그 ‘됨’(being-in-the world), 즉 존재가 지닌 이해의 제한된 지평에 달려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Gadamer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필연적인 주관성은 일종의 개인적 편견(preju-

dice)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편견은 해석 과정의 결함이라기보다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동인(動因)이 된다고 긍정적인 견해를 펴고 있다. 그는 “인간 실존의 역사성(historicity)은 필연적으로 편견을 수반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지각력으로 하여금 어떠한 대상을 향해 방향지을 수 있도록 하며...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와 시각을 지속적으로 열어가는 데 기초가 된다”고 말한다(Gadamer, 1975:9).

이는 Heidegger가 주장한 이해 현상의 “선구조(先構造, fore-structure)”, 그리고 Gadamer의 “전이해(前理解, preunderstanding)”와 “선의미(先意味, fore-meaning)”의 개념 속에서 보다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Gadamer(1975:236)에 의하면,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투사(投射)하는 행위를 한다. 그는 텍스트를 읽어나가면서 최초로 어떤 의미가 떠오르자마자 그 의미를 텍스트 전체가 지니고 있을 그 어떤 전체적 의미에다 투사한다. 그 최초의 의미란 그가 텍스트를 접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대감 등에 의해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이 그는 텍스트를 읽어나가면서 미리 의미를 투사하고 수정하고 다시 투사하고 재수정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해 과정이다.

이해 현상의 ‘전이해’나 ‘선의미’는 텍스트의 의미에 관하여 독자가 자신의 기대감이나 암시,

4) 여기에서 “편견(prejudice)”이란 좁게는 해석자가 텍스트에 대해 지니는 인상, 주관적 느낌이나 이론적 가설 등을 의미하며, 넓게는 해석자의 삶이 처한 사회 문화 전통의 소산인 개념 체계와 의미 등을 가리킨다.

예감 등에 의해 미리 추론하고 특정한 의미를 투사하는 내용이다. 이는 텍스트의 이해에 대한 일종의 ‘편견’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텍스트의 의미를 방해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타당한 의미 해석의 기초가 되어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가 드러내는 의미에 지속적으로 지향하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만약 ‘편견’이 없다면 독자는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관심도, 예감이나 추론도 가질 수 없게 되어 진정한 이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의미의 이해 과정이 끊임 없는 순환 과정으로 열려 있다는 점을 인정할 때, 특정한 해석의 불완전성이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특정한 접근이나 방법이 그 자체 해석의 완벽성이나 초월적인 객관성을 주장한다고 할 때 이는 특정 시각의 독단 내지 편협한 이데올로기가 되고 만다는 데 있다(Larrain, 1979: 166). 만약 질적 연구의 해석 과정에서 기존에 확립된 어떤 이론 체계의 절대성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그 연구의 결과는 그 이론 체계가 불가피하게 지닌 상대적인 시각으로 편협하게 환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자연과학적 세계관의 기초를 제공했던 18세기의 계몽주의(Enlightenment)는 주관적인 편견을 모두 배제한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과학적 객관주의 정신의 지배 하에 자연과학적 세계관과 과학적 방법론의 ‘객관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 즉 어떠한 주관적 편견도 없는 명쾌하고 초월적인 객관적 정신을 신봉하게 되었다.

그러나, Gadamer는 그 같은 과학적 객관주의의 믿음을 “모든 종류의 편견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편견일 뿐(a prejudice against prejudice)”이라고 분석한다. 인간의 해석 행위가 지닌

본질적인 한계성과 인간 시각의 상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해란 인간 자신의 끊임 없는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질문과 대답의 순환 과정일 뿐, 어느 한 시점에서 확고하고 정확한 해석이나 이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객관주의 또한 그 같은 인간의 해석 행위의 산물로서 어느 한 시점과 시각의 편견을 그 자체 내에 이미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Gadamer (1975:236)는 주관적 편견이 없는 순수한 객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됨’, 즉 “인간 실존이란 편견의 벽에 둘러 싸여 있는” 상태라는 인간 존재의 지극히 본질적인 성격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질적 아동연구에 있어 연구자가 임의로 아동의 세계를 해석하고 결론지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해석과 이해과정의 또다른 본질적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해석을 통해 참다운 ‘이해’에 도달한다는 것은 텍스트와 독자, 또는 연구 대상이 되는 아동과 연구자의 주관성이 지속적인 직간접의 대화과정을 거쳐 서로 만나는 ‘간주관적(間主觀的, intersubjective)’ 과정이다. 그리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 결과는 아동의 의도를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연구자 자신이 임의로 해석하는 것도 아닌, 아동의 표현(텍스트)과 연구자(독자) 사이에 형성되는 ‘간주관적 실재(intersubjective reality)’인 것이다(Barrit, Beekman, Bleeker, Mulderij, 1987:74-80).⁵⁾ 이는 연구자가 자기반성적 태도를 가지고 반복순환적으로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 성찰하고, 의심하고, 유의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주관적 행동이나 표현의 의미에 대하여 공명(共鳴, resonance)하게 됨을 말한다. Suransky(1992:65)가 지적한

5) ‘간주관성’이라는 주제를 텍스트 해석과정에 적용시킨 논문으로 진권장(1997) 참조.

대로, 해석의 예술은 아동의 세계와 성인(연구자)의 세계가 지닌 각각의 제한적이고 주관적인 이해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넓혀가서 “지평 융합(fusion of horizons)”을 이룸으로써 구성되는 해석적 간주관성의 예술이다.

3. 아동이해의 변증법적 성격과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

아동에 대한 ‘참다운’ 이해란 결국 ‘지평융합’을 거쳐 ‘간주관적’ 실재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 같은 지평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은 어떠한 성격을 띠는가? 아동에 대한 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아동의 말이나 행동, 글 등을 텍스트 삼아 해석에 임하게 될 때 어떠한 내면적 의식 과정을 거쳐 아동이 표현한 의미와 공명하게 되는 ‘간주관적 실재’에 이르게 되는가? 이 문제를 현대 해석학의 주요 개념인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을 통해 고찰해 본다.

인간의 해석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일련의 순환 과정이 수반된다. Schleiermacher가 “부분과 전체의 변증법(dialectic between parts and whole)”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적한 대로, 어떤 대상에 대한 해석이든 그 과정에는 텍스트의 각 부분이 텍스트의 전체에 대한 가정에 비추어 이해되고, 그 가정은 다시 텍스트의 각 부분에 대한 이해에 의해 새롭게 수정되는 과정이 반복되게 마련이다(Maddox, 1983:67에서 재인용). 이 순환과정은 통상 “해석학적 순환”으로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서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보다 완성된 이해를 얻게 되는 의식의 변증법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해석학적 순환 과정은 또다른 여러 차원에서의 변증법적 작용을 내포하게 되는데, 이는

Gadamer나 Ricoeur의 용어로 “참여(參與)와 소원(疎遠)의 변증법(dialectic between participation and distanciation)” 및 “질문과 응답의 변증법(dialectic between question and answer)”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즉, 텍스트와 독자와의 관계에서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에 열중하여 그 세계에 몰입하는 ‘참여적’ 측면과, 텍스트로부터 잠시 떨어져 나와 거리감을 두고 보다 객관적이고 넓은 안목에서 텍스트의 내용과 지금까지 자신이 한 해석 내용에 대해 곰씹어보는 ‘소원적’ 측면을 병행하게 된다. 이 과정은 독자의 내적 ‘질문과 응답의 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와 자기자신의 편견과 선의미(foresight)간의 조절 작용이 일어나며, 또한 텍스트 저자의 지평과 독자의 지평 사이에서 “지평 융합(fusion of horizons)”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해석학적 순환은 Gadamer의 개념인 전이해(preunderstanding)와 후이해(understanding)간의 순환과정인 동시에, Heidegger의 분석 대로, 인간이 세계 내 존재(being-in-the-world)로서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선구조(foresight)의 변형 과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Heidegger, 1962).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은 최근 Derrida 등의 프랑스 해체론(Deconstruction)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현재(顯在)과 부재(不在)의 변증법적 순환(dialectic between presence and absence)”의 개념으로까지 발전한다. 즉, 표면적으로 드러난 액면적 내용(presence)와 그것에 의해 억압되고 밀려나 부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주변적 내용(absence)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그 액면적 내용의 이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전체나 숨은 가정 또는 그것에 반대되는 견해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게 파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지칭

하는 개념이다(Caputo, 1987).

이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은 깊은 이해에 이르는 해석과정의 성격에 대한 통찰로서, 질적인 아동연구에 있어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큰 시사를 하고 있다. 첫째, 연구자의 반성적(reflection)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의 해석 내용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편견을 과도하게 반영하지나 않았는지, 아동이 표현하려고 했던 내용을 정말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론하고 반성하고 의문해보는 개방적이고 순환적인 사고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질적 연구의 해석과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항상 ‘미완성’인 채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불리는 사고의 순환성은 변증법적인 것으로서 발전적 성격을 띤 하지만 결코 어느 한 시점에서 사고가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벽한 해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항상 보다 나은 해석을 향해가는 도중에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시사점들은 현재 현상학적·해석학적 연구나 문화기술적 연구 등 대부분의 질적 연구를 위한 해석전략으로 응용되고 있다. Spradley(1979; 1980)가 참여관찰법이나 문화기술적 면담법을 위한 그의 질적연구방법론에서 제시한 12단계에 걸친 발전적 연구순서나 Bogdan과 Biklen(1982)가 제안한 범주화 과정, 그리고 van Manen(1990)의 반성적 글쓰기(reflective writing) 등은 해석과정의 변증법적 순환 모형을 취함으로써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을 질적 연구방법론의 기본 성격으로 도입하고 있다.

4. 아동언어와 질적 연구의 글쓰기

질적 아동연구에서는 실험연구나 조사연구 등

의 ‘경험적-분석적’ 연구와는 달리, 연구자가 전적으로 언어 수단에 의지해서 독자에게 연구의 과정과 결과의 신뢰성, 타당성까지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에서는 ‘진한 묘사(think description)’가 요구된다. 그러나, 바로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질적 연구는 자칫 언어의 수사학적 화려함이나 말장난으로 호를 위험도 있다. 여기에서는 질적 아동연구에서 취해야 할 글쓰기의 기본 태도를 현대 해석학과 포스트모던 언어철학의 논의를 통해 명료히 하고자 한다.

예로부터 인문사회 과학에서는 언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흔히 언어는 “존재의 집”으로서(Heidegger, 1962), 또는 “[존재나] 관념 그 자체”로(Derrida, 1978) 일컬어지면서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지배하며 인간 실존의 형태와 움직임을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Gadamer의 용어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언어성(universality of human linguisticality)에 관한 통찰이다.

Gadamer(1975)는 언어란 우리의 “살아 있는 전통”으로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줄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하여 언어의 개방성과 창조성을 강조한다. 유사한 의미에서 Merleau-Ponty(1975)도 언어에는 규칙이나 어법, 문법 등 과거로부터 정착되어 온 “spoken speech”의 측면과, 화자(話者) 및 상황의 특수성과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따라 자유로이 변형하고 발전하면서 침묵이나 여백의 의미까지도 암시하는 자체초월적 성격의 “speaking speech”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양자의 관계를 언어현상적 측면에서 볼 때 spoken speech는 과거의 언어 전통을 통해 speaking speech를 규제하는 반면, speaking speech는 일상의 언어 실천을 통해 spoken speech를 재구성

한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언어철학자 Saussure가 구분한 “*langue*”와 “*parole*”의 개념과 유사하다.

따라서, 언어는 가치중립적인 투명한 표현 수단 그 이상의 것이다. 언어란 그 자체가 액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 동시에 또 그 이상의 것으로서 “자체초월적 행위(act of transcending)” (Merleau-Ponty, 1973:63)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언어가 인간 실존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speaking speech의 개방적 측면을 충분히 확대할 때 인간의 사고와 이해의 지평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언어의 개방성을 인정하는 일은 언어라는 표현 수단 자체가 지닌 표상가능한 것과 결코 표상할 수 없는 것과의 ‘틈새’, 즉 관념 능력과 재현 능력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깨달음을 필요로 한다. Derrida는 이러한 ‘틈새’로 인하여 언어란 대상참조물에 대한 직접적인 참조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기표들간의 폐쇄 회로 내에서 자체의미화만을 거듭하는 차이놀음(a system of differentiation)일 뿐이라고 지적한다(Derrida, 1978; Culler, 1982:109).⁶⁾ 따라서 우리가 믿는 개념적 명료성이나 논리성이란 일치 이론(correspondence theory)에 바탕을 둔 어휘의 겹데기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된다.⁷⁾ 그리하여,

그는 언어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하여 발달한 서구의 형이상학적 인식론이나, 언어과학주의적 개념 정의와 명확한 논리적 전개를 중요시하는 논리실증주의적 관점은 “언어중심주의(logocentrism)”의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⁸⁾

해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언어는 해석학적 순환으로 계속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해석 행위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인간 개인의 성숙 과정과 변화하는 관점에 따라 똑같은 텍스트에 대하여서도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해석되고 다시금 달리 의미화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해석 행위는 곧 실존의 움직임과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든 완결된 언어와 완결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되풀이하여 해석될 수 있는 여백을 지니지 않은 언어, 즉 인위적으로 규정된 전문 용어나 완결된 ‘객관적’ 의미를 주장하는 텍스트는 언어가 지닌 존재론적 기능과 인간 존재의 변화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Ricoeur(1985:67)는 삶의 진정한 생동력이 살아 숨쉬는 언어의 예술적 차원을 여는 노력으로서 창조적 모호함(ambiguity)을 지닌 “詩的 언어(poetic languag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적 언어나 비전문적인 일상 용어에는 수많은 언어의 규칙과 논리, 관념적 전체와 관습에 바탕을 두면서도, 한 편으로는 그 경계를 자유로이 넘

6) Derrida는 기표(signifier)/기의(signified)의 무한 수열의 텍스츄얼리티(textuality)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인식/표상 대상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공간의 差位(英:differ)가 있으며, 사물 현상 자체를 지각하려는 욕망의 충족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遲延(英:defer)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그의 新造語 “디페랑스(différance)”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친 것이다.

7) Derrida는 서구 2천년 철학의 바탕이 언어가 무엇인가 실재를 지칭할 수 있다고 믿는 “현존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presence)”이었다고 비판한다.

8) Derrida의 해체론(Deconstruction)이 지니는 교육학적 함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유혜령(1991) 참조.

나들면서, 변형, 발전해가는 창조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조성은 곧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양식으로서, 그 속에 함축된 삶과 사고의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질적 아동연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질적 연구는 경직된 이론 체계의 분석틀로는 포착하기 힘든 아동의 생활 세계의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즉, 아동 현상을 이해하고 그 현상의 본질을 기술함에 있어 성인연구자에게 익숙한 기존의 정신 기제와 언어 관습이 지닌 한계성을 극복하고, 이에 얽매이지 않는 언어를 통하여 의미화하는 작업인 것이다. 특히 아동의 생활세계는 성인의 세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 나는 강렬한 정서와 도전적인 순간들, 객관적 기준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자체내 회로애락의 이야기들로 특징지어진다(Langeveld, 1983). 이러한 성격은 성인의 경직된 언어로는 충분히 포착할 수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질적 아동연구의 언어는 엄격한 동시에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엄격함’이란 논리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의미하는 진술의 실증 여부나 개념적 명료성에 대한 엄격함이 아니다. 아동 생활세계의 숨겨져 있는 의미들과 그 의미들의 진한 농도를 간파해내려는 치열한 자세와 연구자 자신의 지극히 예민한 감수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현상학자 van Manen(1984)은 연구자의 문학적, 예술적인 언어 이해력과 구사력이 질적 아동연구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고까지 말한다. 마치 작가가 인간 현상의 복잡함과 의미의 풍부함을 포착하고자 감수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일상적 현상 및 대화의 미세한 부분에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듯이, 연구자 또한 그처럼 예민한 이해력이 있어야 하며 또 이

해한 내용을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문학적, 예술적 표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언어라는 것과 [해석해야 할 텍스트로]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향해가는 도중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ilverman, 1980:710).⁹⁾

흔히 현상학적, 해석학적 연구들이 다소 자유롭고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의 존재와 그 이해 행위가 결코 언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자유로운 언어를 통하여 아동이해의 심연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IV. 결 론

이상에서 현대 해석학의 주요 개념을 통하여 질적 아동연구에 포함된 해석과정의 성격을 조명해 보았다. 다양한 질적 연구의 방법론들이 나름대로 해석전략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해석적 성격의 질적 연구란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에 의존한다는 방법론적 특성으로 인하여 연구자의 내면적 해석 작업이 연구의 관건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해석학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해’와 ‘설명’으로 대표되는 인식 과정의 서로 다른 차원, 해석과정에서의 주관성과 객관성의 문제, 그리고 ‘해석학적 순환’으로 불리는 의식의 변증법적 흐름, 언어가 지닌 존재론적 성격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질적 연구를 위한 해석 과정의 본질적인 성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첫째, 질적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은 현상에 대한 ‘이해’의 차원으로, 이는 인과율적인 단선 논리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생활 세계의 복잡

성과 체험적 의미의 깊이를 추구하는 일이다. 기존의 어떠한 이론 체계도 ‘부분적인 진리’ 밖에는 포착할 수 없다는 메타시각적인 통찰에 입각하여 어떠한 이론 체계에 의하여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개방된 시각으로 Husserl의 유명한 현상학적 명제인 “현상 그 자체로 (to the things themselves)”에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이는 연구 대상이 보여주는 표면적 현상을 넘어서서 그 현상의 의미에 대해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파악을 시도하는 일이기도 하다. 흔히 질적 아동연구에서는 참여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이나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의 연구방법을 취하고 아동의 일상적 대화, 질문 등 그에 관련된 다방면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아동이 처한 생활 세계의 맥락과 상황특수성에 보다 개방적이고 친숙하게 접근함으로써 그가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치밀하게 포착하려는 노력이다.

둘째, 질적 연구의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인 동시에, 해석의 깊이를 더해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구자는 자신의 지적, 개인적 배경에 따라 형성된 불가피한 시각의 주관성 속에서 아동의 생활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특정 연구문제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게 됨으로써, 이 주관성은 세계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마치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가 텍스트를 읽어나가면서 자신이 가졌던 초기의 선입견이나 잘못된 생각에서 서서히 탈피하게 되듯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주관적, 이론적 설명 방식을 점차 벗어나면서 아동 대상에 대한 이해에 깊이를 더해가게 된다. 특히, ‘해석학적 순환’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자료해석 과정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시각과 아동 대상이 드러내는 새

로운 측면과의 끊임 없는 대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의 문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가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연구자가 폭넓고 깊이 있는 내적 질문과 응답 과정의 실마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초기에 지녔던 자신의 주관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율적이고도 타당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적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질적 연구의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도(validity)의 문제는 외부적 기준이 아닌 자료 해석 과정 자체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질적 연구, 특히 현상학적, 해석학적 연구에서는 자료 해석의 도구가 바로 연구자 자신이다. 수집된 자료를 연구자가 해석함에 있어 자신의 이해의 지평에 맞추어 해석적 주체로서의 자율적인 인식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동 대상 및 자료에 대한 확인 및 재확인, 수정 및 재수정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키면서 “불확실성의 논리와 질적으로 있을 법한 가능성의 논리(logic of uncertainty and of qualitative probability)”에 의존하여 ‘불확실하고 있을 법한’ 해석을 할 수 있을 뿐이다(Ricoeur, 1981: 212). 따라서, 질적 아동연구에서는 동일한 아동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 정당한 해석들 (legitimate plurality of interpretations)”이 가능하다(Kvale, 1983:192). 연구자 개개인에 따라, 또한 연구의 시점에 따라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 때, 연구자는 자신의 해석 결과를 가능하게 했던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자신의 해석을 설득력 있는 언어를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게 할 때 그의 해석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질적 연구의 평가는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도 함께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A. Giorgi, Kvale, 1983:192에서 재인용). 타당도(validity)의 어원인 라틴어 ‘*validitas*’는 원래 ‘강점(strength)’를 의미하는 말이다.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와는 달리 ‘설명’보다는 ‘이해’의 차원에 근본적인 관심을 둔다고 할 때 질적 연구의 ‘강점’이란 바로 해석의 깊이에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독자로 하여금 연구자 자신이 경험한 의미의 깊이까지 초대하여 함께 공감하고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연구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지평의 융합을 꾀해야 한다.

넷째, 질적 아동연구에서 흔히 보이는 글쓰기의 자유로움은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바가 현상을 연역적, 규범적 모형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상 그 자체’에 함축된 경험의 미세하고 다양한 본질을 의미화하는 작업임을 말해 준다. 현상학적, 해석학적 아동연구에서 흔히 발견하게 되는 문학적 표현 및 논문 쓰기의 자유로운 형식이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인위적인 명료성을 지닌 언어는 그 의미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의 체험적 의미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적 아동연구에서는 현상 및 경험의 상황특수성과 화자특수성(話者特殊性)에 예민한 언어를 사용하여 아동의 구체적인 경험의 감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작업의 성패는 연구자의 감수성에 크게 달려 있다. 질적 연구자는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표면적 의미를 벗어나, 자신의 지성과 감성의 섬세함을 수단으로 하여 아동현상의 미세한 느낌의 흐름과 자칫 지나쳐버릴 수 있는 숨겨진 암시까지도 포착하면서 이를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학 분야에서도 아동의 생

활 세계에 대한 질적 연구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신승렬, 1996; 신옥순, 1986; 이숙재, 1994; 정순화, 김시혜, 1997). 아동의 삶이 엮어내는 생활의 여러 다양한 측면들과, 그 속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체험적 의미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곧 아동의 생활에 내재하는 숨은 복잡성과 갈등, 나름대로의 회로애락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종래의 양적 연구와 상호보완을 이루면서 아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앞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와 아울러, 아동의 생활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질적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신승렬(1996). 아동의 텔레비전 시청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신옥순(1986). 유치원 아동의 초기 교육경험에 관한 이해. 유아교육연구, 7, 63-77.
- 오만석(1986). 현대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교육적 의미소통 과정. 교육이론, 1(1), 85-127.
- 유혜령(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교육. 정신문화연구, 14(2), 183-197.
- 유혜령(1997). 아동연구의 다원화를 위한 이론적 탐색. 교육학논총, 17, 147-166.
- 이숙재(1994). 어린이 놀이터와 놀이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14(1), 109-132.
- 정순화, 김시혜(1996). 동시를 통해 아동이 묘사한 아버지의 모습. 아동학회지, 17(2), 79-105.
- 진권장(1997). 교육과정 개발과정과 간주관성의 해석학적 이해. 허숙, 유혜령(편) 교육 현

- 상의 재개념화: 현상학, 해석학, 탈현대주의적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201-238.
- 최미숙 (1994).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연구방법론적 조명. 유아교육연구, 14(1), 199-220.
- Barthes, R. (1977). *Image, music, text* (trans. S. Heath). London: Fontana.
- Bogdan, R. C. & S. K. Biklen. (198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Boston: Allyn and Bacon.
- Caputo, J. D. (1986). *Radical hermeneutics: Repetition, deconstruction and the hermeneutic projec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 Culler, J. (1982). *On deconstruction: Theory and criticism after structuralism*. New York: Cornell University.
- Derrida, J. (1978). *Writing and differ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Gadamer, H.-G. (1975). *Truth and method*. New York: Crossroad.
- Gadamer, H.-G. (1979). The problem of historical consciousness. In P. Rabinow & W. Sullivan (Eds.) *Interpretive social science: A read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03-160.
- Gadamer, H.-G. (1989). *Truth and method (2nd revised ed.)*. New York: Continuum.
- Habermas, J. (1971).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trans. J. J. Shapiro). Boston: Beacon.
- Heidegger, M. (1962). *Being and time* (trans. J. Macquarrie & E. Robinson). New York: Harper & Row.
- Heidegger, M. (1971). *On the way to language*. New York: Harper & Row.
- Iser, W. (1974). *The implied reade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 Kvale, S. (1983). The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 A phenomenological and a hermeneutical mode of understanding. *Th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14(2), 171-196.
- Larrain, J. (1979). *The concept of ideology*. London: Hutchinson.
- Langeveld, M. J. (1983). The secret place in the life of the child. *Phenomenology + Pedagogy*, 1(2), 181-194.
- Maddox, R. I. (1983). Hermeneutic circle: Vicious or victorious. *Philosophy Today*, 27(1), 66-76.
- Merleau-Ponty, M. (1973). *Consciousness an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trans. H. J. Silverman).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 Merleau-Ponty, M. (1975). In Claude Lefort (Ed.) *The prose of the world* (trans. J. O'Neill)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 Rickman, H. P. (Ed.) (1976). *Dilthey: Selected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Ricoeur, P. (1981).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s: Essays on language, action and 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Ricoeur, P. (1985). The power of speech: Science and poetry. *Philosophy Today*,

- 29(1), 59-70.
- Silverman, H. J. (1980). Phenomenology. *Social Research*, 47(4), 704-720.
- Smith, D. J. (1989). Modernism, post-modernism and the future of pedagogy. Paper presented under the auspices of the Canadian Studies Program, Institute of East &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Smith, D. J. (1996). Identity, self and other in the conduct of pedagogical action: A West/East inquiry. In T. Carson & D. Sumara(Eds.) *Action research as a living practice*. New York: Peter Lang.
-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 Suransky, V. (1982). *The erosion of childhood*. 윤종희, 이재연(역)(1992) 아동기의 실종. 서울: 교보문고.
- van Manen, M. (1984). Practicing phenomenological writing. *Phenomenology+Pedagogy*, 2(1), 36-69.
- van Manen, M.(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